



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 
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and Atherosclerosis

이상지질혈증과  
동맥경화증의 진단

이상지질혈증과  
동맥경화증의 치료

이상지질혈증과  
동맥경화증의 예방

캠페인

학회 및 학회지

교육  
애니메이션

Home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증의 치료 이상지질혈증

##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증의 치료

이상지질혈증

치료기준

치료방법

동맥경화

## 이상지질혈증\_치료기준

LDL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합니다. (표 1)

### (1) 초고위험군

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(관상동맥질환, 허혈성 뇌졸중, 일과성 뇌허혈 발작, 말초혈관질환)를 초고위험군 환자로 따로 분류하여, 이 경우 이차 예방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70 mg/dL 미만 혹은 처음 수치보다 50%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.

### (2) 고위험군

관상동맥질환에 상당하는 위험인자인 경동맥질환(50%가 넘는 경동맥협착)이나 복부동맥류,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일차 예방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100 mg/dL 이상인 경우 치료를 합니다.

### (3) 중등도 위험군

중등도 위험군의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(표 2)가 2개 이상인 경우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되며, 수주 혹은 수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뒤에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130mg/dL 이상인 경우 스타틴을 복용합니다.

### (4) 저위험군

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(표 2)가 1개 이하인 경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수주 혹은 수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뒤에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160 mg/dL 이상인 경우 약물을 복용합니다.

### (5) 고중성지방혈증에 대한 치료지침

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500 mg/dL 이상으로 상승되는 경우 이차적인 원인(체중 증가, 음주, 탄수화물 섭취, 만성신부전, 당뇨병, 갑상선기능저하, 임신, 에스트로겐, tamoxifen, glucocorticoid 등의 투약력) 및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500 mg/dL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급성체장염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원인을 교정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500 mg/dL 이상의 중성지방 농도가 확인되는 경우 fibrates, nicotinic acid, omega-3 fatty acid 등의 약물치료를 시작합니다. 중성지방 농도가 200~500 mg/dL인 경우, 먼저 일차적인 치료는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치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복용합니다. 이차 목표로 non-HDL 콜레스테롤을 목표치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치료목표는 non-HDL 콜레스테롤 농도(=총콜레스테롤-HDL 콜레스테롤)를 계산하여 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. 목표 non-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기존의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에 30을 더한 값입니다.

표 1. 위험도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치료의 기준

위험도	LDL콜레스테롤 농도				
	70~99	100~129	130~159	160~189	≥190
<b>초고위험군*</b>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발작 말초혈관질환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
<b>고위험군</b> 경동맥질환+ 복부동맥류 당뇨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고려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
<b>중등도 위험군</b> 주요위험인자 2개 이상	생활습관 개선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고려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
<b>저위험군</b> 주요위험인자 1개 이하	생활습관 개선	생활습관 개선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고려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	생활습관 개선 및 투약시작

\*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 기저치의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 없이 바로 스타틴을 투약한다. 급성심근경색 이외의 초고위험군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70 mg/dL 미만에서도 스타틴 투약을 고려할 수 있다.

+ 50%가 넘는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 경우

§ 중등도 위험군과 저위험군의 경우는 수주 혹은 수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뒤에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을 시 스타틴 투약을 고려한다.

**표 2.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\***

<b>흡연</b>
고혈압 : 수축기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 mmHg 이상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저HDL 콜레스테롤(<40 mg/dL)
<b>연령</b>
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
<b>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</b>
부모, 형제자매 중 남자 55세 미만, 여자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

\* 고HDL 콜레스테롤(60 mg/dL 이상)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인자 수에서 하나를 감하게 된다.

**표 3. 위험도 분류에 따른 LDL 콜레스테롤 및 non-H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**

위험도	LDL 콜레스테롤 목표 (mg/dL)	non-HDL 콜레스테롤 목표 (mg/dL)
<b>초고위험군</b>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발작 말초혈관질환	<70	<100
<b>고위험군</b> 경동맥질환* 복부동맥류 당뇨병	<100	<130
<b>중등도 위험군</b> 주요위험인자 2개 이상	<130	<160
<b>저위험군</b> 주요위험인자 1개 이하	<160	<190

\* 50%가 넘는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 경우